

헌신과 부활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헌신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March 13,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15번 - 시편 27편 찬 송 / 287장 - 예수 앞에 나오면 / 2, 1절 (통일찬송 205장)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432장 -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통일찬송 482장) 찬 송 / 354장 - 주를 양모 하는 자 (통일찬송 394장) 봉 헌 / 유덕하 집사, 구은강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 누가복음 9:51-57 편대기가 아닌 본질을 붙잡으시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290장 -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통일찬송 412장)
살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2:1-5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경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가?** / 누가복음 3:7-14

영혼의 안전을 위한 영적경고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한다. 교통 신호가 차들의 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신호등 역할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생활하면, 영혼이 안전해진다. 말씀의 경고를 듣고 귀를 기울이면, 영적 시험에서 승리하게 된다. 반면, 교통신호를 따르지 않으면, 안전과 사고의 위험을 마주하듯, 영적경고를 무시하면 영적침체에 빠진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듣고 자신을 살피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팜데기가 아닌 본질을 붙잡으시다. / 누가복음 9:51-57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과 제자들이 붙들고 있던 팜데기를 살펴보자.

첫째,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둘째, 제자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감정을

감정에 치우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닌, 십자가 뒤의 영광을, 감정이 아니라 사명을 굳게 붙잡자.

꺾데기가 아닌 본질을 붙잡으시다. / 누가복음 9:51-57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자 하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명하여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며 아주 과격한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신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을 발견한다. 하나는 고난과 십자가는 반드시 겪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왜 하필이면 승천하실 기약이 하시는가? 그것은 승천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 최종 단계이기 때문이다. 물론 승천 전에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단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승천도 없다.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무작정 우리에게 십자가나 지고 가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십자가 후에는 영광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두 번째 핵심은 전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사역이다. 왜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려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전 인류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핵심들을 파악하지 못한다. 제자들은 핵심을 놓친 채 꺾데기를 붙들고 있었다. 제자들이 붙들고 있던 첫 번째 꺾데기는 십자가 없는 영광이었다. 이들은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권세는 마치 자신들의 권세인 것처럼 여겼다. 이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단적인 모습이다.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십자가이다.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길을 열심히 갈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이다.

제자들이 붙들고 있던 또 다른 꺾데기는 사람의 감정이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감정은 분노였다. 야고보와 요한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을 받고 예수님이라고 기분이 나쁘지 않으셨겠는가? 하지만 이런 감정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생각하신 것은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의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뒤의 영광이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다. 온 인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말씀적응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삼과 신앙

우리의 기도

“여호와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1)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1)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 없으신 크신 사랑으로 늘 동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 죽을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믿음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Covid에 겹쳐 전쟁의 소식까지 전해져 전 세계가 슬픔에 잠겨 힘들어하는 혼돈의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지구상에 더이상 전쟁의 아픔이 없기를 바랐지만, 강한 자들의 완악함과 탐욕으로 인해 참혹한 전쟁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의 아픔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루 속히 전쟁이 중단되며 모든 인생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실 분은 참 구원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님 한 분 밖에 없으심을 온 세상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참 평화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봅니다. 광야와 같은 이땅에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에게 삶의 우선 순위와 세상과 구별되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와 일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매일의 삶 전체가 영적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을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주간을 맞이하여 새해에 주님께 드렸던 새 각오와 열정으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섬김의 교화와 각 가정과 개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의 가정이 이사를 무사히 잘 마치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시간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실 때
 갑절의 성령 충만을 더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영적 귀와 눈을
 열어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득한 예배로 은혜와
 회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구은강 집사 -

No WAR!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웠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웠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웠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웠다.”

이사야 43장 21절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